

시상대

멀리서/가까이
채워지는 공간

시대여성

· 유세일 : 3월 24일 화요일
· 선거일 : 3월 26일, 27일
· 발행처 : 14대 총여학생회
김미선 · 이려화
선거운동본부

1998년 3월 16일 월요일

The women of the University of Seoul

발행인 : 국미애

이천오백 시대 여학우의

튼튼한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지면안내

시대 여학생의 취업을 위해

2면

- 여학생 취업, 무엇이 필요한가?
- 타학교 사례들, 그리고...
- 여교수님과 나 (이혜련)

육아시설 · 여교수 채용 확대

3면

- 대학교에 보육시설이 필요하다(송도영)
- 서울대 탁아소 소개
- 시립대에 보육시설 설립이 가능한가?
-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싶다(박희용)
- 주목받지 못하는 여성,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이숙례)

학생회

4면

- 교수칼럼 : 학생회에 바란다(김희경)
- 학생회에게 희망이 있는가.(한정효)

남녀고용평등법이 존재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문이 좁은 사회,
성폭력 특별법 개정을 해도 세계 성폭력 2위인 사회,

남녀불평등이 없다면서도
학점이 높아도 여자라는 이유로
취업추천서 구경도 못하는 대학
여학생이 늘어나면 과가 맞출 짓조라고 말하는 대학

총여학생회장 입후보자

김미선 (행정 4)

76년 강원도 횡성 출생
95년 강릉여고 졸업
동아리연합회 기획부장
97년 민속탈춤반 두령
98년 14대 총여학생회 회장 입후보

부총여학생회장 입후보자

이려화 (회계 4)

77년 경북 왜관 출생
95년 점촌고등학교 졸업
96년 홍사량 총무
97년 13대 총여학생회 사무국장
98년 14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입후보

제도가 의식을 못 따라가는 건지
의식이 제도를 못 따라가는 건지
혼재되어 어지러운 지금, 여기이지만

우리의 '경험세계'를 들여다보는 훈련이

오랜동안 길러져 온 우리의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너와
그 사고에서 튕겨져나와 방황하는 나에게는
이제 시작입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드는 단상들....

‘또 학생회 선거철이 왔나 보다.’

여기저기 후보들이 돌아다니고, 대자보가 붙고, 강의실 유세를 들어오고 한다.

친구들이 다들 관심없다고 한다.

이제 학생회 선거철은 ‘그래, 이번엔 저 후보를 뽑아야지’하는
판단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다만 계절의 변화만 실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도 정말 우리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들이 나오면 좋을텐데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서 영 믿음이 가질 않는다....’

이는 학생회 선거를 바라보는 소수의 몇몇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어느새 운동권만이 판치는 학생회 선거,

학생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들만의 세상’인 학생회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김미선, 이려화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이러한 학생회 선거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선거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후 학생회와 학우들이 바로 옆에서 호흡할 수 있는 ‘

우리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광고



시립대 여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1. 여학생 취업 이대로는 안된다.

- 우선 취업정보실부터 대폭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강화된 취업 정보실에는 반드시 ‘여성 취업 전문 상담원’이 있어야 한다.
- 여학생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성 취업 관련 교양 과목을 개설하자.



2. 평생 직업을 꿈꾸는 시립대 여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 야간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교직원, 지역주민들의 육아문제를 학내의 보육시설 마련으로 해결해야 한다. 보육시설에 관한 정부의 지원금이 국,공립대 우선이란 것을 최대한 이용하자. 그리고 이는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시립대 졸업생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3. 여교수 비율이 늘어나야 한다.

- 능력있는 여학자들이 머무를 강단이 한국의 대학엔 없다. 그들을 가로막는 교수 채용에서의 성차별을 제거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수많은 여박사들은 외국에서 떠돌고, 95%의 남자 교수들에 둘러싸여 암울한 미래에 기가 죽은 34%의 시립대 여학생들은 대학 주변에서 떠돈다.

정책 ①

여대생 취업, 무엇이 필요한가?



대학 졸업 후 취직을 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시시각각 자신을 움직여 오는 편견과 냉소에 가위눌림을 당할 것이다.

이른바 취업시즌이 되어서 신문 광고나 친구, 선배들로부터 얻은 취업 정보를 가지고 분주하게 입사 원서를 내려 다니지만, 정작 원서를 들어줄 만한 곳도 없다는 것을 금방 느낀다. 불경기까지 겹쳐 올해 아예 대졸 여자에게는 원서 교부조차 하지 않거나 제한된 영역만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서 접수할 해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뜨리거나 가까스로 필기 시험을 통과 하고 나면 면접이라는 관문을 또 통과해야 한다.

점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승진·보수에서의 차별화, 결혼 후 사회 강요, 뽑아놓고도 발령을 내지 않는 등 실로 다양하다. [남녀고용 평등법]이 제정된 후 4개 대기업이 여대생들에 의해 차별광고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물은 뒤로는 공공연한 차별은 많이 줄었다. 그러나 대신 우회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 기업에서 입사 원서가 와도 남학생들에게 우선 권여지거나, 추첨에 의해 순서를 정한다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천서가 아깝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를 중심으로 남학생들의 움직임을 분주하다. 남자선배는 취업문제에 관한 한 대부분의 남자 후배만을 챙겨준다는 것. 나이 두세 살 많은 것이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나이 제한에 걸려 취업의 폭이 너무나 줄어들고, 취업 공부를 할 시간도 촉박해진다는 것.

이처럼 여학생들이 넘어야 할 고개의 끝은 보이질 않지만 우리 자신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사회

를 바꾸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보다 취업을 못하는 이유를 사회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부족 탓으로 돌리버리게 된다.

경제적 자립으로 인격적인 독립과 자아 실현을 이루어 가겠다는 소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자 알아서 바늘 구멍을 찾기 보다는 개인적인 노력은 물론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운동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우선 우리 여학생들을 주눅들게 하고 남학생에게만 시선집중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차단된 취업 정보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누군가를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단순한 취업대미로 머무르는게 아닌 육아 시설과 같은 진정한 사회생활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자.

14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김미선, 이려화는 이러한 일들이 대학에서부터 조금씩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시백의 그림세상

취업난시대 풍경



타학교 사례들, 그리고...

여학생 취업, 이젠 학교가 나서야 한다

1. 취업정보실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 학교 취업 정보실은 아르바이트 광고 부차외에는 학생들의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전문 상담원들 고용 확대와 정보 탐색을 위한 각종 기자재 도입을 위해 예산이 대폭 확장 되어야 한다. 가까운 한국외국어대의 경우 취업정보실에서는 7대의 단말기와 인터넷으로 취업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입사지원서를 취업정보센터에서 접수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 상담은 먼저 개인별 취업희망카드를 작성하여 취업성

실제 지원 가능성을 비롯하여 여사원 능력 개발에 대한 부자 정도, 결혼 후 직장 보장과 산전 휴가에 대한 법정 기준 준수 여부, 승진이나 보수에 대한 성차별 정도 등을 망라한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상근자가 필요하다. 현재 IMF 사태가 터진 이후 한국 여성민우회 산하 '고용평등추진위원회'의 상근자들은 밀려드는 상담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지금 우리 여대생들은 실질적인 여성취업전문가의 상담과 남학생 우선 추천서 배부같은 고용 평등법 위반 고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3.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을, 4학년에게는 구체적인 직업을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각 학년의 학과 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 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는 적성 검사, 각종 상담, 대인관계훈련 프로그램 등을 자체 수행하고 있으나 위에서 제기된 여학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인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등을 통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83년 연세대 여학생 처에서는 4학년 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생애 개발 워크숍'을 실시했다. 16시간으로 이루어진 이 '대학 교육 과정에 여학생을 위해 이번 생애 개발 워크숍과 같은 과목이 개설될 필요'에 대해 95.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성과 직업' 강좌를 소개한다

한양대, 여성취업 과목 개설

한양대학교에서는 지난 96년 말부터 여학생 취업 위원회를 설립하

여교수님과 나

무척이나 반가웠다. 앞으로 대학원 통째로 얻게 된 자료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교수님과 나의 만남이 나의 인생

담을 통하여 전로설정 및 대응책과 적성등을 고려하여 도와준다. 기업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도 구비되어 있어 언제라도 시청 가능하다.

2. 여성 취업 전문 상담원

서울대 여학생 문제 상담소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생기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진상 조사, 여학생에 대한 취업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여성 문제와 졸업 후 가정 생활에 대한 조언 등의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학교의 취업정보실이 아무리 강화되더라도 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여성의 미래에는 결혼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이 사회에서 단순히 취업 정보 제공만으로 여대생의 사회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예를 들어 1,2학년에게는 적극적으로 대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리더쉽, 자립심, 추진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3학년에게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평생 직업인으로 서 가져야 할 자세를 키워주는

할 만한것은 '여성과 취업'이라는 취업 강좌를 개설해서 이번 학기부터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운영한다는 것이다. 3,4학년의 여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이 과목은 여학생들에게 여성 취업에 대한 중요성과 취업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강좌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현대 여성 직업의 현황과 전망, 세용형태와 채용정책등으로 구성된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일과 직업' 부분에서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바람직한 직업관, 직업선택요령 등에 대해 강의한다. 두 번째 부분인 '여성 전문직 성공사례'에서는 벤처기업등의 여성 기업인, 공무원, 정치인, 작가, 영화 감독 등 사회 생활에서의 모델을 제시해준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자기 연출' 부분에서는 언어와 매너, 외모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작성법등 취업에 실질적인 기술을 전달한다. '여성과 직업'은 매 주세별로 교내와 외부강사의 강의 및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수강하는 여학생들에게는 취업 추천 의뢰시 우선권을 준다. 이 강좌의 신설은 여학생 고용 차별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제척이 될 수 있고 여학생들의 취업 활로 모색에 당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립대에도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를 선택할 때에도 내가 여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점은 없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최선을 다하면 모든일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다.

2학년 때 과 집행부장을 할 때였다. 이상하게도 행사 때마다 앞에 나서서 학생들을 이끄는 일을 할 때에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함께 준비했던 남학생이 앞에 나서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학생은 옆에서 행사 보조원으로 여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3학년이 되어서 김희경 교수님이라는 공학 계열 최초의 여교수님이 들어오셨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의외였지만 어쨌든 나는

있기 때문이다. 교수님께서서는 물론 분이셔서 그랬는지, 유학시절에 인턴 학종 때문인지 무척이나 진취적이고 자유롭게 수업을 운영하셨다. 나의 경우에는 그 전에 비해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수업 외 시간에도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서 의문나는 점들을 질문했다.

3학년 말부터 겨울 방학까지 김희경교수님과 여러 차례 진로에 대한 상담을 했다. 교수님께서는 여성으로서 나의 입장이 되어 상세한 사람까지 조언을 해주셨다. 내가 사회에서 서게 되는 위치, 내가 여성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극복해야 한다는 격려말이 다. 지금 나는 교수님과의 상담을

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행운이다. 다른 많은 여학생들이 이러한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내가 졸업한 후, 내 동기들이 군 제대 후 학교에 왔을 때 여교수님이 제신 것을 보면 아마도 많이 놀랄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시기에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미개한 사고는 깨어지면서 대학생들을 시작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혜련(환경공학과 4학년)

광고

여성영화 비디오방



- ❖ 총여학생회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 그 곳에!
- ❖ 이른 역시부터 늦은 아홉시까지 공짜로~!!
- ❖ 남녀불문하고 3인 이상!
- ❖ 54가지 테이프가 구비되어있어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쉼터(여학생 휴게실)

- ❖ 학생회관 2층에 이젠게 있다!!
- ❖ 이용시간이 하루 24시간인 걸 몰랐지??



고민~ 비켜!

- ❖ 성폭력 문제부터 이성 문제까지!! 성에 관한 모든 것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 ❖ 매주 금요일 10:00~17:00 사이 문리학관 1층으로 오세요~!!
- ❖ 남학생도 환영합니다.
- ❖ 전화상담 가능해요 : 210-2291

여학생 상담실



IMF시대의 여성



고용불평등고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 추진본부의 고용불평등고발센터에서는 여성고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거나 목격한 사안들에 대해 고발 접수와 상담 및 구체적 조치 지원등을 하고 있다

1. 기혼여성 해고

▲ 인원감축바람이 불고 있다. 기준은 남성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기혼, 장기근속, 사내커리어성이 우선이라고 한다. (스랜드)

▲ 주로 기혼여성들에게 권고사직형식으로 해고를 시키고 있다. 해당 여직원들은 대부분 사표를 쓴 상태이다. (리쓰)

2. 비정규직 해고

▲ 대기업 계열사인 엔지니어링사에서 계약직(설계업무)으로 있다가 해고 당했다. 대졸 공채로 계열사인 건설사에 입사했으나 결혼했다는 이유로 엔지니어링사로, 그것도 계약직으로 96년 12월 강제전출당했다. (엔지니어링)

3. 장기근속 여성

▲ 일괄 사직서를 쓰게 하고 100명정도가 사표수리가 되었는데 수리된 사람 가운데 부장은 2명에 불과하고 여직원이 80%에 이르고 있다. (L제선)

4. 산전 후휴중의 해고

▲ 산전후 휴가기간중인 여직원 2명이 회사로부터 그만두라는 압력을 받았다.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연수부로 발령을 내겠다고 한다. (전선)

정책 ③

주목받지 못하는 여학생, 대학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필자는 여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때로는 커다란 혼란을 겪기도 한다. 그것은 필자가 남성들과 이야기할 때는 약간의 장벽을 느끼기 때문이었지만 이 글을 쓰고 난 지금 이것이 절대로 과민반응이 아니며 여학생에게 여교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어떤 집단이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비율은 30% 이상이라고 한다.

1. 여학생의 절대적 증가 그러나 애매한 여대생

여자 대학생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서울시립대도 재학생 중 여학생비율이 34%라는데,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왜 여자 교수님의 숫자는 늘 적을까? 교수직에 지원할 수 있는 석사학위 이상의 여성 학위 취득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96년도 대학교수의 신규임용 현황은 총 3,909명 중 여성은 584명으로 14.9%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중 가정대, 음대, 간호대를 제외하면 4~5% 수준이다.

몇 년전 하버드 출신 여자 졸업생들은 하버드의 여교수 숫자가 10%를 약간 상회하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항의하면서 하버드대가 여교수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때까지 기부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벌이겠

다고 발표한 일이 있다.

대학 교수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범주에 속하지만 많은 남자 교수님들의 경우 여학생에 대해 어떠한 교육관을 갖고 계신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전문가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유학을 꿈꾸는 여대생들에게 아직도 많은 남자 교수님들은 취직하여 좋은 신방이나 만나라고 진로를 지도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남자 교수님들은 후학으로 여자 제자를 키우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자는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남자보다 교수 채용 순위에서 한참 낮은 5순위에 머문다고 한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서 일하고 싶어하는 여자 지원자는 남편이 서울에 근무할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편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임무를 소홀히할 것이라고 믿는 학교측의 배려 덕분이다. 반면, 같은 경우의 남자 지원자는 아내가 서울에 있다 해도 재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학의 보직 교수는 대부분 남자이고, 그들은 여교수 채용을 꺼린다. 선심스런 한두명 채용하고는 이제 여자는 그만 채용해야 한다고 공언하는 남자 교수님들 사이에서 소수 여교수의 입지는 열악한 것이지만, 그 밑에서 학

문을 편견없는 자세로 배워야 하는 여대생의 입장도 매우 애매한 것 같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2. 여교수는 여대생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람은 사회속에서의 자기 위치를 찾는데 있어서 역할모델(Role Model)을 갖는다. 예를 들면 에디슨 같은 발명가, 빌 게이츠같은 사업가, 할리우드 배우 등 자기가 추구하는 유형을 찾고 이들의 삶의 과정, 신념 등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나가게 된다.

그러나 배움을 거듭할수록 여대생들에게 사회의 장벽은 높아만질 뿐이며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존재도 너무 적다. 그저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지독하면 저렇게 멋있는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역할모델이 적은 우리 사회에서 역할모델 역할을 해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존재, 때로는 동료로, 토론대상자로, 한 인간으로, 스승으로서, 인생선배로서 여대생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존재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존재를 필자는 여교수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여학생의 수는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는 여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3. 그렇다면 남자 교수님은 여학생의 스승이 될 수 없는가

물론 아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고 여제자를 기꺼이 길러내며, 성별을 가리지 않고 능력만 본다면 여성이라

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우리들도 굳이 여교수를 주장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여성들도 학계로 진출할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앞에서도 누누히 말했으므로 생략한다.

그렇지 않은 현실 때문에 우리는 여교수의 증원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대생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서구에서 남녀평등의 역사가 몇 백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한국에서는 몇 십년만에 이루어내고자 하므로 어떤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할당제라는 정책은 서구에서 검증된 것처럼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과도기이다. 과도기에는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문을 닦는데 장애가 없어지는 그 때에는 어떤 여학생들도 여교수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여학생이 남녀교수 구별없이 전공분야와 적성에 맞추어서 교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4. 할당제를 하면 능력있는 여자가 교수될 수도 있다?

흔히 가지는 편견으로 할당제로 능력있는 여자가 뽑히고 능력있는 남자가 탈락한다는 것이다. 교수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여자는 우리 사회에서 30%도 안된다는 것일까? 인적 자원은 충분하다고 본다. 대학에서도 석박사학위수여자 비율이 증가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여성들이 매년 많이 양산되었다. 이들 여성들이 기회가 없어 사장되어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일단 뽑아보아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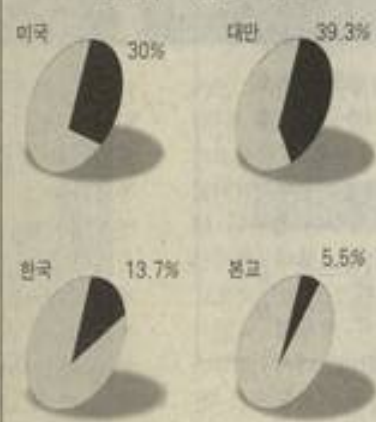
주고서 평가를 한다면 할말이 없지만 능력있는 여자들이 숨어있는 상황에서 무능력한 여성이 뽑히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 눈을 크게 뜨고 숨어있는 여자전주를 발굴할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기회도 주지않고 능력 타령하는 것은 너무 이른 걱정이 아닐까.

우리에게 역할모델을 달라. 열심히 하고 능력만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일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요건!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시립대 현황(1998년)

단위	여학생(%)	전체교수(명)	여교수(명)
문리대	52.8	75	10
도과대	32.6	71	3
경상대	29.2	29	0
법정대	31.2	20	0
공대	12.5	40	0
총계	33.7	235	13

여교수 비율 비교



5. 여교수 증원은 학계 남녀평등의 시작

앞서 말했듯이 교육기간내에 있는 여학생의 비율은 급증하는 가운데 교수 사회내에 여교수의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교수 증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사 설

대학교에 웬 탁아소?

송도영(도시사회학과 교수)

무엇이 여성을 가로막는가

오늘날 여성인력의 사회적 참여는 그나마 조금씩 진전을 보이는 기미가 없지 않다. 그러나 장벽은 여전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를 나는 바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적금의 현실에서 발견한다.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당연' 하지만, 남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수 없다(?? !!!). 이런 관에 전문 여성인력을 길러 보아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여전히 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실, 여성인력을 고용해 보아야 시집갈 준비 하는 생장에 제대로 일을 할지 의심스럽고, 시집간 다음에는 아무래도 집안살림에 신경이 쏠릴테니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거기다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예다가, 갓난아이 집에 두고 나온 사람이 일을 제대로 된 정신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이 아버지는? → 아이 아버지는 아이와 가정에 대해서 그런 예측이 없는 존재다. 그런 예측을 가져서도 안된다. 조직에 충성해야 하며, 거기에 밤낮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야만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한다. 오늘날 소위 '가정의 조화'가 파괴되는 것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어머니의 취업이기보다는 아버지의 부재를 강요하는 대안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사회에서는 영국의 경제난국을 타개했다는 대처수상도, 필리핀 민주화를 통해 민정의 대통령이 된 아키노도 나올 수 없다. 제대로된 전문 여성인력이 성장하기 어렵다.

여성 취업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하나!

이렇게 본다면 여성취업대책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가사와 특히 육아에 관한 '사회적 보조장치'이다. 이것은 사회가 지불하는 '단순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가능성을 확장, 개발하는 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투자'이다. 대학이 여학생들의 취업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무엇이 여학생들의 취업을 막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이며 여성을 차별하게 하는 실질적인 장치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성들도 당연히 아이를 기르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수많은 사교비용과 청소

정책 ②

'학내 보육시설' 과연 실현 가능한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과 비율

91년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은 보육시설에 관한 정부 지원 근거의 기초가 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들어선 보육시설은 학내 수요층과 더불어

있다. 또한, 학교내 설치 보육시설의 경우 아동수의 50%이상을 지역주민자녀를 그 대상으로 할 경우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을 받게될 근거가 확보된다. 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보육료는 우리 학교의 보육 시설의 경우 국고보조

탁아소가 있는 학교 '서울대'



'서울대 어린이집'이 생활과학 단과대 부속이라는 위상으로 지난 3월 5일 최신 보육시설을 두루 갖추고 개원했다. 처음에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에서 학교측에 요구했던 것은 독서실, 슈퍼,어린이 놀이방 등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춘 대학부속 조차 아니었다.

지역주민의 야망까지 대상으로 하는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이 된다.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로 분류되는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그리고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비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자

구분	사업비			
	사업 총비용	국고 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서울시	100%	16%	76%	9%

(한국여성개발원발행 - 보육사업예산총관)
시설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 보육시설과 관련한 대부분의 예산이 국고와 지방비의 충당으로 이루어지고

시설로 분리되어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저렴하다

구분	국고 보조시설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2세미만	213,000	304,000	325,000
2세	176,000	247,000	325,000
3세이상	109,000	148,000	179,000

(98 표준보육단가 - 단위: 원/월당기준)
이것이 서울시립대에 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의 근거이다. 이에 관해 사회복지학과 한영수교수는 현재 학교측에서 설립 추진중인 '서울 시민의 대학' 건물에 보육시설의 공간 확보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정책팀



다. 처음에 서울대측은 학교 보조금 지원을 계속 꺼려 하였으나 98년 개원을 앞두고 연 1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 외 필요 사업비는 영유아보육법에 준거한 정부 지원금과 수요자 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다. (비용은 일의 표를 참조) 서울대와 서울 시립대는 국·공립대이므로 국가 지원을 받아 교내에 설치할 경우 '국고 보조 시설'로 포함되어 수요자 부담비용이 매우 저렴한 편이다. 원장과 15명의 교사가 법정 기준인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상아동은 대학원생, 학부생 및 맞벌이 관악 구민의 자녀들이다. (구민자녀는 50%이하로 제한되며 빈민 가정 우선). 영아부터 9세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정원은 168명이다. 그러나 지금도 100여명(!)에 이르는 신청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실사 작업과정에서 보육 시설을 원하는 수요자 규모가 이미 놀이방 수준을 훨씬 넘어선 수치로 나타나자 아예 독립된 보육 시설 규모로 확대해 학교측에 요구하게 되었다. 이후 학교측과 원장의 입장조율기간은 1년여 이상이 소요되었고 학생회측은 학교측에게 지속적인 공청회를 통해 설득작업을 가졌다. 처음에 서울대측은 학교 보조금 지원을 계속 꺼려 하였으나 98년 개원을 앞두고 연 1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 외 필요 사업비는 영유아보육법에 준거한 정부 지원금과 수요자 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다. (비용은 일의 표를 참조) 서울대와 서울 시립대는 국·공립대이므로 국가 지원을 받아 교내에 설치할 경우 '국고 보조 시설'로 포함되어 수요자 부담비용이 매우 저렴한 편이다. 원장과 15명의 교사가 법정 기준인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상아동은 대학원생, 학부생 및 맞벌이 관악 구민의 자녀들이다. (구민자녀는 50%이하로 제한되며 빈민 가정 우선). 영아부터 9세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정원은 168명이다. 그러나 지금도 100여명(!)에 이르는 신청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사장을 맡고 날로 증가하는 여학생에 대한 역할모델의 제시와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고려 할 때 여교수의 구성비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임 교원의 증대 및 확보, 대학내 각종 위원회 및 행정조직의 여성참여 확대, 대학내 성차별 풍토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한다. 정책적으로는 △교수채용제도의 투명성 확보 △대학의 평등위원회 설치 △교수들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적 지도 및 후원 강화를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의 실시 △여교수들간의 네트워크 강화 △상위의사결정직에 여교수 참여 확대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이숙례 (도시행정학과 석사수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여성취업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 남성들도 뭇뭇이 아이들을 기르는 데 참여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균형있는 실험을 대학에서 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하겠는가? 졸업생, 대학원생의 활동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우수 여성자원을 끌어들이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여성 직원에 대한 탁아소 지원 또한 두 말할 것 없다. 그리고, 나같은 남성도 월급을 좀 더 주는 직장보다는 편한 곳은 탁아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또 맡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겠다. 우리 집사람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꿈에서 깨어나라"고 한숨으로 일축한다. 그러나 나는... "정말 우리대학에 탁아시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원
(대학원 총학생회장)

아이를 키우는 건 미래를 키우는 일이다.
행복지수를 높이자는 말이 거창한 이념의 세계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보육시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물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지,
아이를 키우는 곳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학문적 발전은 한 사회의 미래를 기획하는 토대이다.
그런가 하면 양육의 문제는
한 사회의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토대이다.
때문에 학문과 양육,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건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일 것이다. 학교내 보육시설 설립 요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학 공동체가 책임의 일부를 기꺼이 짊어지자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다.

아빠의 고민

박희용 (환경공학 석사수로)

2년전 나는 대학원에 재학중이었고 아내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다. 서로가 서로의 일에 충실하였고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없이 지낼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서 우리는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가 태어나기전에는 이런저런 생각만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아내가 두달동안의 출산휴가를 끝낼 무렵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있었다. 우리는 아이를 송탄의 큰치형내에 맡기기로 하였고, 그 후로 우리의 생활은 주말 부모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러저러 생활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쌓이게 되었다. 그 하나는 몸이 무척 피곤하다라는 것이다. 이는 생활해보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보다 더 큰 문제인데 아이가 우리를 부모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나그네였고, 아이는 큰치형을 더 따랐다. 이것은 미리 예상한 일이었지만, 직접 닦했을 때에는 마음에 상처를 남기었다. 결국, 아이문제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맞벌이부부가 겪는 일일 것이다. 만약 학내에 탁아소가 설치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는 어느 한쪽이 자신의 일을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데가 가까이에 있어 마음에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부모님과 딸 회선씨와 함께 살고 있지만, 어머니가 무척 힘들어 하신다. 결국 이런 미묘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 가까운 곳에 탁아소가 있다면 여러면에서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이 지금은 학내에 머무를 수 있다지만, 그 폭과 정도를 넓힌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을 것이다.

학생회 한다고 날뛰는 후배에게 학생회 한다고 설쳤던 선배가

학생회에게 희망이 있는가?

학생회에게 바라는 글

교수
칼럼



내가 대학을 들어갔던 해는 광주사태가 나던 1980년이다. 민주화의 불을 맞아, 고등학교때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알았던 10월 유신이 장기집권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죽고, 미치고, 감히던 대학생들이 불순분자가 아니라, 이 시대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는 데없이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학교에서 피학당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렇게, 심오육년 전의 나의 대학시절은 기억하기에도 우울하여, 아직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고인다.

대학생들의 권익은 누가 언어내야 하는가?

하지만 요즘 학생회가 붙이는 대자보를 가끔 보자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학생들은 아직도 스스로를 '희생'해야 민주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학생운동이 사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증명된 일이다. 그러나, 이제 학생운동은 대학생들의 권익을 추구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권익은 노조가, 농민들의 권익은 농민들이, 교사들의 권익은 전교조가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권익은 누가 언어낼 것인가? 그것은 학생회가 할 일이다. 그러나, 학생권을 추구하는 것과 계급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 구별의 기준은 그 계급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진보에 도움을 주는 일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 하나가 취업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학벌과 성, 지역에 대한 차별은 우리 나라의 진보를 가로막는 아주 핵심적인 것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제 40%에 육박하는 여학생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 차별을 없애는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나라 진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하대 대자보에서 단지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글보다는 학생들 자신들과 관련된, 기업에서의 고용평등법의 위반사례, 학벌중심의 고용사례를 고발하는 내용을 읽었으면 좋겠다. 가령 남자인 여자인 서울 시립대 학생들이 서울 대학교 학생들과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운동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라 생각한다.

김희경
(환경공학과 교수)

만평



한정효

(95년 부총여학생회장)

학생회가 망했다고들 한다.

작년 겨울 총학생회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결렬됐지만 학생이 크게 손해 본 건 없다. 취업도 안되는 판국에 학생회 하겠다고 설치는 학생은 분명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골빈놈이다.

학생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겉나게 좋은 세상이라 학생들이 바랄게 없는 것도 아닌데 어찌 학생회는 방황만 하는가.

밤에 내꿈에서나 등장하는 해답은 너무도 간단하다. 나의 생활고를 이해하는 학생회. 그리고 그 생활고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는 학생회이다.

만약 한총련을 앞세운 전국의 총학생회가 완벽히 부모로부터 독립한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집중하면 어떨까? 대학 교육까지 무효화되어 교육의 기회가 만연에게 공정히 보장되고 국가와 각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기숙사와 생활비를 제공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각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간단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벌여 남는 이유로 학생회 간부와 정책 자문가의 급여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리고 학생들의 빈곤한 문화 생활에도 산성을 써서 영화,연극,여행 교통료를 포함하여 학생증으로 할인되는 영역을 대폭 확장한다면? 생활,빈곤,기회는 학점으로 인정되고 학생회 경험도 경력으로 쳐부되는 사회는?

만 세상 이야기가 아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오래전부터 하던 학생회 활동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조합이다. 당장 학생회 간부가 신념이나 희생만으로 버티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학생회 일꾼은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을 설치하고 근로 장학생까지 두어 지지 분함을 개선하기까지는 약 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 여타 학교들처럼 총학생회의 여학생부서로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때는 여성문제를 다루는 강좌나 대자보 작업이 주 사업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일방적으로 학우들에게 내뱉는 것이 학생회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총여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여성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 곳곳에 진보적인 사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할 뿐이다. 학생회 힘이 약해진 틈을 타 기존의 사회과학 강좌들도 없어지던 와중에 학교측에 교양과목으로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라고 요구했고 그 근거 마련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학생들은 여성학 강좌가 자유교양에서 교양 선택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성과 사랑'이라는 성교육 강좌가 총여학생회 활동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 걸까.

2500 여학생과의 사이에 아무런 하부단위도 없이 단방 총여학생회만 있기에 항상 선거철이면 학우들로부터 멀리 있는 총여라는 소리를 들곤 하나 이는 모든 학생회,정치가가 고심하는 문제다. 2년전 서울지역 모범 총여학생회 사례를 위한 취재로 기자가 찾아와선 시립대 총여가 가지고 있는 학생회상이 보기 드문 선진국형 운동권이라고 극찬한 적도 있었다. 그땐 웃고 말았지만 다른 학교 총여학생들이 이제서야 여학생 휴게실,여성 영화비디오방,여성학·호신술 교양 강좌,성폭력 상담소 개설과 학적 제정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걸 보면 시립대가 앞서가진 하나 보다.

하지만 총여학생회 일의 성격상(학생회상이 다르다는게 다 정화하겠다)대동제,전농제전,한총련 출범식,생활,빈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타 학생회를 일정과 항상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만 정치 조작 회의나 정권타도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남학생들의 여권방으로 휴게실을 내세우는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 요구

어 올리는 것은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점이다. 물론 양귀 들어 막고 골방에 처박힌 정치가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단지 우리나라는 왜 정치한다는 이들이 각종 경조사에 얼굴을 자주 비춰야 재선을 기약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달 뿐이다. 그래, 그런 자리를 통해 한명이라도 더 만나 민심을 파악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인맥과 아기자기함에 의존하는 가족주의 정치란 데 있다. 인구 많아 복잡다단하고 바쁜 현대 사회에서 좀더 합리적으로 대중과 정치가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없는가? 선거때마다 작년 총여학생회장의 얼굴이 얼마나 보였느냐로 학생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우리 학생들도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 문제라면 무턱대고 반박 준비로 바쁜 우리 남학생들 옆에서 침묵으로 동의를 보내는, 아니면 한술 더 뜬 냉소로 일관하는 우리 시립대 여학생들도 이젠 조금씩 바뀌자. 여성 문제를 적대적으로 물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단지 오갈 데 없는 이 많은 여학생들이 한방울 뛰고 있는 구

생들의 탈출구도 아니다.

언제쯤 총여학생회가 왜 있느냐는 질문이 사라질까?

총여학생회(이하 총여)는 여성 문제에 기반해서 탄생했다. 남학생 중심의 학생회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 여학생들 때문에 존재한다. 그들의 이해는 이색상 어디를 가던지 소외당할 팔자인가 보다.

총여학생회가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도.....

여학생 휴게실이 총여학생회 활동으로 생겼다는 것을 아는 여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처음엔 학교 어느곳에서도 여학생들이 편히 쉴 수 없는 휴식 공간의 부재와 환조과,건축공학과와 같은 야간 작업을 하는 여학생들이 많다는 문제의식으로 학교측에 꾸준히 요구 했었다. 공간을 따내고 내부에 잠자는 방,독서실,온수 샤워실

입을 늘이도록 요구하다가 마침내는 유례 없던 여성 영화 비디오방이 학내에 생긴 것이 자만히 있는 우리에게 학교가 알아서 해줄게 아니라는 것도. 하지만 작년에 성폭력 사건들이 터졌을 때 학생들과의 의사 소통에 문제가 많았나 보다. 나조차도 총여 후배들을 많이 나무랐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법으로도 성폭력이라고 판결된 것을 오로지 학교 위상 떨어질까 쉬쉬하는 학교측과 강간만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립대 학생들의 심토속에서 끝까지 피해자 여학생의 앞을 지켜주고 결국은 학교측으로부터 전문 성폭력 상담실 개설과 성폭력을 관한 학칙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걸 보면 후배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물에 흔들렸었다면 지금 우리 학교에 여학생 휴게실 하나 온전히 있을 수 있을까? 학생회상이나 여성 문제에 대한 물이 해는 운동권이 더욱 심각했다. 제대로 하는 총여학생회는 학생회 조직들내에서도 외롭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인으로 중심인이 중심이 되어 살고 싶은 우리 여학생들이 비정상적인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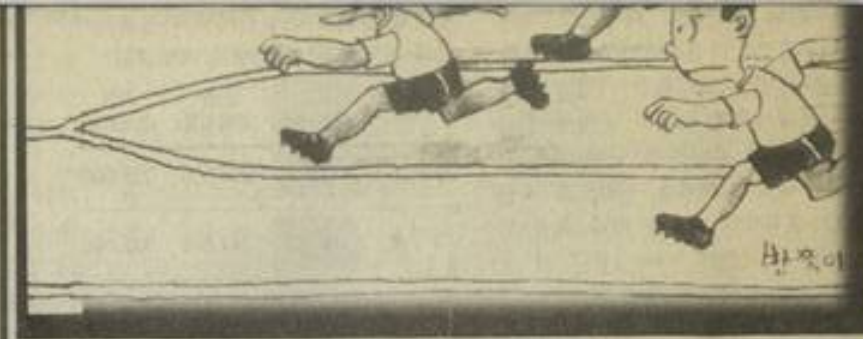
자주 보이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인가.

아마추어 학생들이기에 잘못된 것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의 학생회 평가 기준들도 바뀌어야 한다. 교내를 휩쓸며 얼굴 자주 보이는 것으로 학생회 간부의 활동량을 평가해선 안된다. 어느 사회나 모든 이들의 참여와 의사 소통을 직접 민주주의 수준으로 최대한 끌

어 차별의 나라에서 언젠가 경기 한번 들고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이젠 한단계 올라설 때다.

이번에 첫발을 내딛는 '여학생 전문 취업 상담원', '학내 탁아소 마련', '여교수 비윤 확대' 같은 정책들이 생소하거나 꿈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사회 생활 보장을 위해 참으로 필요하며 충분한 조사 끝에 나온 정책들이다. 1년으로 모두 실현될 순 없지만 앞서가는 학생회이기에 언젠가는 가능하리라 믿는다. 그래도 학생회 같은거 서로 안하겠다고 도망치는 요즘같은 때에, 하겠다고 설치하는 여학생들이 꾸역 꾸역 나오는 걸 보면 학생회에 아주 희망이 없는것도 아니지 않은가.



여자는 남자보다 일동이 뛰어나야 똑같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여성도 결코 남성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기회와 조건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싶/다



화장실에서 나오며 거울에 비친 내모습을 보았다.
남들은 다 얇은 옷인데.. 봄인데..
내 목에 드리워진 두꺼운 목도리...
아직 내게는 혹독한 겨울이지만
곧 화창한 봄이 오리라는 확신으로...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에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14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김미선, 이려화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음의 번호로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김미선(정후보, 행정 4) : 012-1039-5536
이려화(부후보, 회계 1) : 015-375-0629
한정호(정책팀, 환경 4) : 015-1885-3700
장윤희(정책팀, 조경 4) : 012-1039-1172
이은희(정책팀, 행정 4) : 015-8307-7708
김예숙(정책팀, 행정 4) : 012-357-3564
홍난희(정책팀, 국문 1) : 012-244-3228
배전희(정책팀, 화공 2) : 210-2135